

스트레스 요인과 사회적 지지가 다문화가정 자녀의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김진희*¹⁾

경남대학교 교수*

Stressors and social support influenced to stress of the children from married-immigrant families

Kim, Jin-Hee*¹⁾

*Dept. of Home Economics Education, Kyungnam University Professor**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influential factors which is related to stress among the children from married-immigrant families. The cultural adjustment factor explored as the most affective factor to the children from multi-cultural families. Associated stress with the cultural adjustment, stress which is related to Korean ability presented as the most problematic one. As the conflict related to internalized problems increased as the stress also increased. However, as social support increased as the degree of stress seems to be decreased. For those children, schools work as the safe place compare to the other social environment. Therefore, it would be beneficial to redirect the role and the function of schools for the children from the married-immigrant families. Various educational opportunity, which is not limited to teach Korean and Korean culture, should be offered to the children as to improve his/her self-esteem.

Key words: The Children from Married-Immigrant Families, Cultural Adjustment, Internalized Problems, Social Support

1) 교신저자: Kim-Jin Hee, 7 Kyungnamdaehak-ro, Changwon-si, Kyungnam University Republic of Korea
Tel: 055-249-2352, Fax: 0505-999-2148, E-mail: witch65@kyungnam.ac.kr

2) 이 논문은 경남대학교 교내 학술 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국내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취학 현황을 살펴보면 2006년 9,398명에서 2011년 31,788명으로 5년 만에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MPAS, 2011). 지금과 같은 증가 추세가 계속될 경우, Yang(2007)의 연구에서 제시된 2020년 출생 신생아의 32% 정도가 다문화가정 자녀일 것이라는 전망을 넘어설 것으로도 보인다. 정부는 2006년 5월 “다문화가정 자녀 교육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2007년 6월에는 “다문화가정 자녀 교육지원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러한 정책적 지원에 힘입어 전국 각 시·군에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110곳이 개설되었으며 다문화가정 방문지원, 한국어 교실 개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도 다문화가정 자녀들을 위한 가정방문 교사제, 다문화 교육을 위한 교원연수 개최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아쉬운 점은 이러한 대책들이 아직도 일회성 행사나 교과학습에 국한되어 있다는 점이다. 지원 방법의 다각화나 연속적이며 중·장기간 이루어질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이 아직은 부족한 상태이다.

현 지원제도의 실효성에 관한 의문점은 각 기관과 단체의 조사결과를 통해서도 나타나고 있다. MPAS(2007)의 발표에 따르면, 다문화가정 자녀의 학교 중도 탈락률은 초등학교 15.4%, 중학생 39.7%, 고등학교 69.6%로 일반가정 아동의 미취학률(초등학교 0.4%, 중학생 4%, 고등학교 8.7%)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또한 중도입국 다문화가정 자녀의 학령인구 추정치와 실제 학생 수에 차이를 조사한 결과(MEST, 2011) 총 4,480명 중 56.7%인 2,541명만이 학교를 다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고학년으로 갈수록 그 비율이 급격하게 줄어드는 것을 알 수 있다(초등학교 110%, 중학교 63.2%, 고등학교 15.8%).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Jung(2006)은 부와 모의 문화가 혼재된 가정교육과 한국의 학교교육을 동시에 경험하면서 정체성 형성에 혼란을 느끼게 되고, 이러한 정체성 형성의 혼란은 대인관계 형성과정에서 부정적으로 작용하여, 또래들로부터

놀림을 당하거나 자신감을 잃어 학교 교육에서도 주변으로 밀리게 되는 원인이 된다고 보았다. Lee와 Cho(2008)은 가정 내의 이중문화 속에서, 부모의 문화를 실용적이고 혼성적으로 선택하는 성향 그리고 상황과 맥락에 따라 자신을 다르게 정체화 하는 이중성을 갖게 된다고 제시 하고 있다. 이중문화적응스트레스를 덜 받을수록 자아정체성은 높아지고(Shin, 2007), 자존감 상승과 문제행동의 감소로 이어진다고 보고 있다(Hong, 2004). 그리고 문화적응스트레스는 연령이 낮을수록 높게 나타나며(Shin, 2007) 친구와 교사들의 사회적지지가 높을수록 내재화문제가 낮아진다고 주장하고 있다(Choi, 2009). 또한 다문화가정 아동의 학교적응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친구지지 인 것으로 나타났다(Lee, 2009).

이처럼 최근 까지 진행된 다문화가정 자녀에 대한 연구들은 다문화가정 자녀가 경험하는 문제와 그 원인을 분석하는데 집중되어있으나, 다문화가정 자녀의 원만한 성장과 발달을 돕기 위해서는 다문화가정 자녀의 특성에 관한 연구를 기반으로 이들이 처한 생활환경의 상호관계를 파악하는 일이 요구된다. 즉, 다문화가정 자녀가 나타내는 특성에 영향을 주는 개인, 학교, 사회의 영향 요인과 이러한 요인에 영향을 주는 구체적인 원인을 밝혀냄으로써 다문화가정 자녀의 요구가 무엇인가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다.

2. 연구문제

본 연구의 목적은 다문화가정 자녀의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규명하기 위해 다문화가정 자녀의 특성 중 내재화문제, 학교적응, 문화적응이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력을 알아보고, 사회적 지지가 이러한 변인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밝히는 것이다. 그리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다문화가정 자녀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모도하기 위해 요구되는 정책과 서비스의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1] 다문화가정 자녀의 개인적 특성에 따른 내재화 문제, 학교적응, 문화적응, 사회적지지 변

인의 차이를 밝힌다.

- [연구문제-2] 다문화가정 자녀의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내재화 문제, 학교적응, 문화적응 변인의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한다.
- [연구문제-3] 다문화가정 자녀의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내재화 문제, 학교적응, 문화적응 변인의 상대적 영향력을 규명한다.

II. 이론적 배경

1. 다문화가정 자녀의 스트레스 요인

가. 내재화 문제

자녀의 문제행동은 가정, 학교, 지역사회에서 생활하는 과정에서 적응에 실패하였거나 심리적(Farrington, 2003; Henry et al, 1996), 가정환경(Ha, 2003; Barnes & Farrell, 1992) 및 학교 환경특성(Jeong & Kim, 1998; Barnes & Farrell, 1992) 등 여러 요인들로 인해 유발된 부적응으로 그 발생빈도나 표출정도가 정상적 범위를 벗어난 행동이라 정의할 수 있다. 문제행동은 아동이 자신의 내적인 갈등이나 고통을 억제하는 과잉 통제된 행동이 원인이 되어 우울, 불안, 위축, 두려움, 신체증상 등과 같은 정서적 문제와 관련된 증상으로 나타나는 내재화문제와 자신의 갈등이나 고통을 외부로 표출하는 과소 통제된 행동이 원인이 되어 공격성, 싸움, 비행과 같은 행동적 문제를 발생시키는 외현화 문제로 구별된다(Achenbach, 1991).

이 중 내재화 문제는 타인에게 피해를 주거나 갈등을 불러오기 보다는 내면적·심리적 성격을 보이는 것으로 본인 스스로가 심리적 고통을 겪는 것이 특징이다. 내재화 문제는 공격성, 비행 등과 같은 외현화 문제처럼 겉으로 크게 드러나지 않아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한 채 지나치기 쉽지만 외현화 되어 밖으로 표현되는 문제의 원인이 될 수 있다. 특히, 다문화가정 아동들의 경우 다음과 같은 문제들로 인해

심리적 내재화 문제를 겪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첫째, 신체적 특성에 따른 어려움이다. 다문화가정 아동이 다른 친구들과 외모의 차이를 많이 느낄수록 아동의 학교적응 수준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An, 2007; Jung, 2006). 둘째, 언어적인 문제에서 오는 어려움이다. 국제결혼 가정 자녀들은 말을 배우는 가장 중요한 시기인 유아기에 언어발달이 늦고, 자라면서 독해와 어휘력, 쓰기, 작문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Oh, 2005). 이와 같이 언어능력이 낮은 것은 아동의 자신감에도 영향을 주어 아동이 스스로 위축되고 스트레스를 받아 우울과 불안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Shin, 2007). 셋째, 정체성과 관련된 어려움이다. 단일민족, 순혈주의를 강조하는 사회문화적 신념은 국제결혼가정자녀들에게 배타적인 수박에 없고 그들의 외모가 다른 것은 한국인들에게 호기심의 대상이 됨으로써 다문화가정 아동들의 학교 중도 탈락률은 일반 아동에 비해 현저히 높다(Shin, 2007).

나. 학교 적응

학교적응의 정의를 살펴보면, 교육학대사전(1992)에서는 학생이 학교의 총체적인 영향 속에서 자신의 욕구를 합리적으로 해결하여 만족감을 느끼고 조화 있는 관계를 유지하여 교사 및 학생들과의 관계가 만족스러운 상태로 학교생활에 적응시키는 것이라고 설명하며, 더 나아가서는 학교생활에서의 경험을 통한 사회화 과정으로 규정짓고 있다(Park, 2003). 학교에 잘 적응하는 아동은 학교에 대한 감정이나 태도, 동기가 긍정적이기 때문에 원만한 대인관계를 맺으며, 학업성적이 향상되고 행동 특성이 바람직하게 형성된다(Choi, 1993).

학교를 좋아하며 학급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등 학교에 적응을 잘하는 아동은 학교생활에서 더 많이 배우고 이익을 얻는 반면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는 아동은 긴장, 절망, 불평 등의 부정적인 감정으로 인해 아동발달에 바람직하지 못한 영향을 줄 수 있다(Moon & Sim, 2001). 또한 학교 수업 시간에 주의를 기울이는 정도, 새로운 것에 대한 호기심, 공부할 때의 어려움, 주어진 과제의 해결 여부 등 학교수업 시간의 태도가 좋을수록 아동은 학교에 적응을 잘 하며 자신에 대한 만족도가 높다(Kim, 1998).

다문화가정 자녀에 대한 학교적응을 살펴보면, An(2007)은 국제결혼가정 자녀의 학교적응에 관한 연구에서 사회적 지지가 높을수록, 이중 문화 특성이 높을수록, 어머니의 국적이 중국, 필리핀, 일본 등의 다수가 있는 국적일수록 자녀의 학교적응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Shin(2007)의 연구에서는 사회적 지지가 높을수록, 학교적응을 잘할수록 자아정체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학교적응의 하위 영역 중 학습활동관계가 가장 낮은 수치를 나타내어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학습부진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을 주장하였다. Lee(2009)의 연구에서도 사회적 지지가 높을수록 학교적응을 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친구지지, 가족지지, 교사지지의 순으로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Ryu(2007)의 연구에서는 다문화가정 자녀 중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잘 적응하며, 적응 유연성과 사회성이 높을수록 학교에 더 잘 적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 문화적응 스트레스

문화적응 스트레스란 문화 접촉으로 인하여 경험하게 되는 정서적, 행동적, 인지적 대처 반응에 영향을 주는 변화로 인해 발생하는 스트레스 및 대처방식 적응과정에서 발생한 갈등과 긴장을 의미한다(Hovey & Magana, 2002). 문화 적응 스트레스는 새로운 문화에 적응하고자 노력할 때, 개인 또는 집단 차원에서 경험하는 현상으로 자신이 태어나고 자란 나라를 떠나 다른 나라의 주류 사회로 들어서는 순간 이주자들은 소수자가 되어 다른 사람들로부터 특별한 시선을 받게 되면서 발생하게 된다.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주류 사회에서 살아가는 소수자가 느끼는 차별과 편견, 주류 문화에 동화되기를 강요하는 주류 사회로의 압박을 말한다.

Kwak(2008)의 연구에 따르면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문화적응스트레스 수준이 낮을수록 아동의 자율성을 존중하고 반응적이고 민감하며 과제를 적절히 구조화하여 도움을 제공한다. 다문화가정 자녀의 문화적응스트레스가 낮을수록, 아동의 내재화 문제정도도 낮아지는(Choi, 2009) 반면 다문화가정자녀의 문화적응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우울, 위축과 같은 심리적 부적응을 초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Nho, 2000; Lee, 2007). Shin(2007)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문화적응스트레스를 적게

받을수록 다문화가정 자녀의 자아정체성이 높아지고 연령이 어릴수록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몽골출신 이주 노동자 자녀의 문화적응 스트레스 연구(Hong, 2004)에서는 문화적응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자존감이 낮고 우울·불안과 같은 내재화 문제가 높아지는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라. 학업성취도 및 경제적 수준

Kim(2003)는 낮은 학업성취 수준은 아동에게 스트레스 요인으로 우울, 불안을 가져오며 이러한 불안정한 심리 상태는 다시 낮은 학업능력으로 이어진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다문화가정 자녀의 낮은 학업성취수준은 학교생활적응에 있어서 위험요인 이다. 이로 인한 학교 부적응은 다시 아동의 내재화 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Lee, 2007; Jung, 2007).

또한 다문화가정 아동의 학업 능력에 따라 내재화 문제는 차이를 보이는데 학업능력이 낮은 아동이 높은 아동보다 위축, 우울·불안의 내재화 문제를 많이 경험한다(Lee, 2007; Kim et al, 2005)의 연구에서도 교육 접근과 경험 과정의 배분 격차는 교육 성취의 격차로 이어져 다문화가정 초·중등 학생의 기초학력 미달자는 일반학생에 비하여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교육 성취 격차는 향후 학력의 격차로 이어지고, 결국 사회적 지위 격차로 이어져 새로운 소외계층의 형성과 사회문제의 유발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주장하고 있다. 반면, Yang(2011)는 자신의 의견을 말이나 글로 표현하는 데 어려움을 갖는 일부 학생을 제외하고는 학교 공부를 하는데 어려움을 느끼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제적 수준에 따른 아동의 내재화 문제는 빈곤 아동의 경우 그렇지 않은 대상에 비해 상대적으로 내재화 문제가 더 높았으며, 자존감은 유의미하게 낮은 것으로 밝혀졌다(Kim, 2005). 즉, 생활수준이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에 비해 위축, 우울·불안이 낮으며 그로 인해 보다 안정된 정서로 적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Yang, 1997). Lee(2007)와 Shin(2008)의 연구에서도 경제적 수준을 높게 인식한 아동일수록 내재화 문제가 낮게 나타났다.

Choi(2009)는 경제적 수준을 구분하는 기준점이 모호하기

때문에 경제적 개념이 미흡한 학령기 아동으로부터 가정형편을 구체적으로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제시하였다. 따라서 절대적 빈곤상태보다 자녀가 지각하는 주관적 빈곤감이 보다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주관적으로 느끼는 빈곤감으로 가정의 경제적 수준을 측정하는 것에 비중을 두었다.

2. 다문화가정 아동의 스트레스 감소 요인

다문화가정 자녀의 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사회적 지지란 사랑, 존중, 인정, 상징적 또는 물질적 지원이나 도움과 같이 사회적 관계를 통해 개인이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얻을 수 있는 모든 긍정적 자원을 의미한다. 사회적 지지는 환경적 스트레스 요인이 개인의 건강에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온다는 생태학적 연구에서 그 유래를 찾을 수 있다. 사회적 지지와 개인의 신체적·심리적 건강과의 관계를 밝힌 연구에서 사회적 지지의 결핍은 신경증적 증상 및 정신질환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Lee, 2007) 사회적 지지가 낮은 수준의 사람들은 사망률도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Han & Yoo, 1996).

사회적 지지에 대한 중요한 타인들에 관한 연구에서는 부모와 형제로 구성된 가족은 아동에게 다양한 사회적 지지를 제공하며 아동이 얻은 지지는 스트레스 유발 상황에서 아동을 보호하고 적응에 도움을 준다고 밝히고 있다(Lee, 2005). Youn & Chung(1997)은 친한 친구의 지지를 높이 지각할수록 아동은 자신감과 유능감 및 지도력이 더 높게 나타났다는 연구 결과를 제시하였다. 다문화가정 아동의 경우 친구지지와 교사지지가 높을수록 내재화 문제가 낮아지며(Choi, 2009), 다문화가정 아동의 학교적응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친구지지로 나타났다(Lee, 2009).

위에서 살펴본 연구에서 제시된 것과 같이 사회적 지지는 일반적으로 스트레스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며 다문화 가정 아동은 물론 일반 아동들의 학교 적응 및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로 밝혀졌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다문화 가정 자녀의 스트레스에 영향을 주는 변인들의 상대적 영향력을 검증하면서 사회적지지 변인을 함께 연구함으로써 사회

적 지지가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이 다문화 가정 자녀의 스트레스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는지 확인해 보고자 한다.

I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경남지역에서 다문화 지역중심학교로 지정된 32개 초등학교의 3-6학년이다. 설문지는 196부를 회수하여 분석에 부적합한 8부를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188부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성비는 남학생 47.9%, 여학생 52.1%이고, 어머니의 출신 국가는 일본 출신이 가장 많았으며(45.7%) 다음으로 중국(23.4%), 필리핀(16.0%), 베트남 순이었다. 자녀의 성적과 가정의 경제적 수준은 대부분 보통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집안에서의 대화는 거의 한국어를 사용하고 있었으며, 어머니의 한국어 능력은 대체적으로 높은 수준이라고 응답한 사례가 많았다.

2. 측정도구

본 연구에서 사용된 설문지는 다문화가정 자녀의 스트레스와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가정한 내재화문제, 학교 적응, 문화적응 스트레스, 사회적 지지를 측정하기 위한 도구로 구성하였고,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알아보는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다.

가. 내재화문제 척도

다문화가정 자녀의 내재화 문제를 측정하기 위한 척도는 Achenbach(1991)가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적응 상태를 측정하기 위해 개발한 미국판 아동행동평가척도를 Oh et al(2001)이 우리나라 아동·청소년에게 적합하도록 수정한

Table 1. Characteristics of Research Sample

	Classification	N	%
Gender	Male	90	47.9
	Female	98	52.1
School Years	Elementary School 3rd Year	37	19.7
	Elementary School 4th Year	60	31.9
	Elementary School 5th Year	46	24.5
	Elementary School 6th Year	45	23.9
Mother's Homeland	China	44	23.4
	Vietnam	10	5.3
	Japan	86	45.7
	Philippine	30	16.0
	Others	18	9.6
Difference in Appearance	None	120	63.8
	A Little Different	63	33.5
	Very Different	5	2.7
School Achievement	Excellent	4	2.1
	Good	32	17.0
	Fair	124	66.0
	Poor	22	11.7
	Very Poor	6	3.2
Financial Status	Good	49	26.1
	Fair	129	68.6
	Poor	10	5.3
Frequently using language with mother	Korean	135	71.8
	Mother's Native Language	5	2.7
	Mixed	48	25.5
Korean Comprehension Ability of Mother	Poor	3	1.6
	Need Improvement	56	29.8
	Fluent	129	68.6
Korean Speaking Ability of Mother	Poor	2	1.1
	Need Improvement	31	16.5
	Fluent	155	82.4
Korean Reading Ability of Mother	Poor	5	2.7
	Need Improvement	51	27.1
	Fluent	132	70.2
Korean Written Ability of Mother	Poor	8	4.3
	Need Improvement	51	27.1
	Fluent	129	68.6
Total		188	100.0

것을 사용 하였다. 문항구성은 우울·불안 16문항, 사회적 위축 6문항 중 10문항을 선정하여 1점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5점 '매우 그렇다'까지 Likert 5점 척도로 측정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불안이 심하고 사회적 위축이 많이 되어 내재화 문제가 많음을 의미한다.

나. 학교적응 척도

학교적응 척도는 Hwang(1998)이 Ladd Kochenerfer와 Coleman(1996)의 선행연구에서 사용한 설문지를 참고로 재구성한 문항을 사용하였다. 학교적응은 학생이 학교 학습에서 얼마나 생활을 잘 하고 있는가를 묻는 것으로 학교에 대한 지각(9문항), 학교·학습에서의 활동성(10문항), 학습관련

태도와 행동(10문항) 하위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매우 그렇다’까지 Likert 5점 척도로 측정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학교적응도가 높은 것으로 해석하였다.

다. 문화적응 스트레스 척도

문화적응스트레스는 Hovey와 King(1996)이 이주노동자 자녀의 문화적응스트레스 측정에 사용한 SAFE(Social, Attitudinal & Environment, Acculturative Stress)를 Nho(2000)가 재미교포 청소년의 정신건강 연구를 위해 수정한 것을 사용하였다.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문화적응 차이로 인한 부모와의 갈등, 한국어 실력에 대한 열등감, 한국 거주에 대한 전반적인 스트레스 등에 관한 10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1점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5점 ‘매우 그렇다’까지 Likert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문화적응 정도와 스트레스 정도 두 가지로 해석하여 점수가 낮을수록 문화적응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하는 반면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종속변인으로 투입할 경우 점수가 높을수록 스트레스가 높은 것으로 해석하였다.

라. 사회적 지지 척도

사회적 지지 척도는 Hong(2004)이 몽골 출신 이주노동자 자녀의 심리사회적 적응을 살펴보기 위해 사용한 문항 중 일부로 구성하였다. Hong(2004)은 사회적 지지 척도를 지지원(친구지지, 가족지지, 교사지지)과 지지체계(정서지지, 자존지지, 물질지지)의 하위 요인으로 구성 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친구지지와 교사지지에 관한 6문항을 사용하였고, ‘매우 아니다’에서 ‘매우 그렇다’ 까지 Likert 4점 척도로 측정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지지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3. 분석방법

가. 조사대상자의 개인적 특성은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등을 산출하였다.

나. 다문화가정 자녀의 개인적 특성에 따른 내재화문제, 학교적응 및 문화적응 스트레스의 차이를 보기 위해 일

원변량분석(one-way anova)을 하였다.

다. 다문화가정 자녀의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내의 구체적인 내용과 각 변인간의 영향력을 검증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을 실시하였다.

IV. 결과 및 고찰

1. 개인적 특성에 따른 연구 변인의 차이

가. 내재화 문제

내재화 문제의 경우 총 10개 문항 중 A(1) ‘나는 보잘 것 없고 남보다 못하다고 느낀다.’, A(2) ‘나는 종종 불행하다고 생각하거나 슬퍼하고, 우울해한다.’, A(3)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A(4) ‘나는 남들과 잘 어울리지 않으려고 한다.’의 4개 문항에서만 개인적 특성에 따른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2).

다문화가정의 아동은 다문화라는 특성에 의해 내재화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대부분의 문항은 학업성적에 따라서만 내재화 문제 인식 정도에 차이가 나타났으며 다른 요인들은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A(1), A(2), A(3) 그리고 A(4) 문항 모두 학업성적에 따른 차이가 있어 성적이 낮은 집단이 내재화 문제 점수가 높다. A(3) 문항은 성적과 함께 가정 경제 상태에 따른 차이도 있어 경제적 상황이 나쁜 집단에서 내재화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A(4) 문항만 외모에 따른 차이가 있어 외모 차이가 큰 집단이 내재화문제를 높게 평가하였다.

나. 학교 적응도

다문화 가정 자녀의 개인적 특성에 따라 학교적응에 차이가 있는가를 살펴본 결과(Table 3), 학교 적응 문항 10개 질문 중 2개의 문항에서만 차이가 있다. B(1) ‘나는 학교에 있는 동안 마음이 편하다’는 외모와 어머니와의 주 대화 언어

Table 2. Perception of Internalization

		Classification	N	M	Std.	F	sig
A(1) Low Self-Dignity	School Achievement	Excellent	4	1.00	.000	3.115	.016
		Good	32	1.84	1.221		
		Fair	124	1.81	.993		
		Poor	22	2.23	1.152		
		Very Poor	6	3.00	1.414		
A(2) Frequently Feel Unhappiness, Sadness and Depressed.	School Achievement	Excellent	4	1.00	.000	4.073	.003
		Good	32	1.75	1.107		
		Fair	124	1.87	1.126		
		Poor	22	2.23	1.270		
		Very Poor	6	3.50	1.761		
A(3) No One Loves Me	School Achievement	Excellent	4	1.00	.000	3.439	.010
		Good	32	1.31	.821		
		Fair	124	1.69	.989		
		Poor	22	2.23	1.020		
	Financial Condition	Very Poor	6	1.83	1.329	3.612	.029
		Good	49	1.49	.938		
		Fair	129	1.57	.837		
A(4) Unwilling to Gather with Others	Differences in Appearance	Poor	10	2.00	1.333	6.061	.003
		No Difference	120	1.41	.761		
		A Little Different	63	1.83	.976		
	School Achievement	Very Different	5	2.20	1.789	5.184	.001
		Excellent	4	1.00	.000		
		Good	32	1.34	.602		
		Fair	124	1.50	.781		
Need Improvement	Poor	22	2.18	1.332	1.506		
	Very Poor	6	2.33	1.506			

에 따라 차이가 나타났으며, B(2) ‘여럿이 함께하는 활동에 참가하지 못한다.’의 질문에는 외모 차이에 따른 차이만 있다. B(1) 문항은 외모 차이가 없는 집단보다 외모 차이가 있는 집단에서 그리고 어머니의 모국어로 대화하는 집단이 한국어를 쓰는 집단보다 점수가 높다. 이러한 결과는 외모 차

이나 언어가 학교적응에 전적으로 영향을 주지 않으며 오히려 이런 차이들이 외부환경보다 학교를 편안하게 느끼게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B(2) 문항은 외모 차이가 없거나 큰 집단이 약간 있는 집단보다 점수가 높아 함께하는 활동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3. Perception of School Adaptation

		Classification	N	M	Std.	F	sig
B(1) Emotionally Comfortable While at School	Difference in Appearance	None	120	3.28	1.168	2.940	.038
		A Little Different	63	3.37	1.067		
		Very Different	5	3.40	.894		
	Frequently Using Language with Mother	Korean	135	3.28	1.124	3.180	.044
		Mother's Native Language	5	4.20	1.304		
Mixed		48	3.31	1.095			
B(2) Poor in Group Work	Difference in Appearance	No Difference	120	4.28	.830	5.882	.003
		A Little Different	63	3.83	.890		
		Very Different	5	4.20	.447		

Table 4. Perception of Culture Adaptation

		Classification	N	M	Std.	F	sig
C(1) - Do not want to go to school because mother is a foreigner	Financial Condition	Good	120	1.61	1.204	5.064	.007
		Fair	63	1.43	.827		
		Poor	5	2.40	1.174		
C(2) - Living in Korea is Stressful	School Achievement	Excellent	4	1.00	.000	5.189	.001
		Good	32	1.47	.803		
		Fair	124	1.40	.835		
		Need Improvement	22	1.68	.995		
C(3) - My neighbors act harshly towards my family	Financial Condition	Poor	6	3.00	1.897	10.032	.000
		Good	49	1.14	.354		
		Fair	129	1.11	.380		
C(4) - Get stressed due to poor Korean ability	School Achievement	Poor	10	1.70	1.337	5.456	.000
		Excellent	4	1.00	.000		
		Good	32	1.31	.859		
		Fair	124	1.26	.636		
		Need Improvement	22	1.55	.858		
		Poor	6	2.67	1.966		

다. 문화 적응도

다문화 가정 자녀의 개인적 특성에 따른 문화적응 차이를 살펴본 결과(Table 4), 총 10문항 중 C(1) ‘어머니가 외국인이라 학교에 가고 싶지 않다.’, C(2) ‘한국에 사는 것에 스트레스를 받는다.’, C(3) ‘우리 동네 사람들은 우리 식구를 못 살게 군다.’, C(4) ‘한국어를 잘못해서 스트레스를 받는다.’의 4문항에서만 차이를 보였다. C(1)과 C(3) 문항은 재정 상태에 따른 차이가 있어 재정상태가 나쁜 집단이 높거나 보통인 집단보다 점수가 높아 문화적응을 잘하지 못한 것으로 해석된다. C(2)와 C(4) 문항은 학업 성적에 따른 점수 차이가 있는데 이러한 결과는 학업성취가 낮은 집단은 높은 집단보다 한국에서 사는 것과 한국어를 잘못하는 것으로 인해 문화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제시해 준다.

라. 사회적지지

다문화 가정 자녀의 특성에 따라 사회적 지지 문항 6개중 2개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5). D(1) ‘친구 지지’는 외모에 따른 차이가 있어 외모 차이가 약간 있는 집단이 큰 집단보다 그리고 외모 차이가 약간 있는 집단이 없는 집단보다 친구로부터 사회적 지지를 높게 인지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다문화가정 아동에 대한 배타적인 태도는 외모 차이가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해석된다. D(2) ‘교사지지’는 학년에 따라 집단 간 차이가 있는데, 5, 6학년 집단이 다른 집단보다 교사로부터 지지를 많이 받는다고 보고하였다.

Table 5. Perception of Culture Adaptation

		Classification	N	M	Std.	F	sig
D(1) - Support from Friends	Difference in Appearance	No Difference	120	2.43	1.207	2.835	.026
		A Little Different	63	2.57	1.073		
		Very Different	5	2.40	1.140		
D(2) - Support from Teacher	School Years	3rd Year	37	3.08	1.402	1.849	.021
		4th Year	60	2.90	1.231		
		5th Year	46	3.37	1.218		
		6th Year	40	3.31	1.083		

2. 다문화가정 자녀의 스트레스에 영향을 주는 변인의 내용 분석

다문화가정 자녀의 내재화 문제, 학교적응, 문화적응 점수에 영향을 주는 구체적인 문항을 알아보기 위하여 각 변인별로 회귀 분석을 하였다. 이는 각 변인의 척도 전체 점수로 파악하는 것보다 다문화 가정 자녀의 특성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다문화가정 자녀가 경험하는 내재화 문제, 학교적응, 문화적응에서 주목해야 할 내용이 무엇이며 어떠한 대책이 요구되는지를 제시하고자 한다.

다문화가정 자녀의 내재화문제 점수에 대한 문항의 영향력을 회귀분석 결과(Table 6), 유효한 요소는 3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자신이 걱정이 많은 편이라 생각’하는 문항(.200, $p<.001$)이 내재화 문제에 가장 크게 영향을 주고, 다음으로 ‘외롭다고 느낄수록’ 내재화 문제의 점수가 높아진다. 그리고 ‘혼자 있는 것을 좋아 한다’는 문항(-.076, $p<.05$)은 내재화 문제에 부적 영향을 준다.

Table 6. R-Analysis – Internalization Factor

	B	Std.E	β	t
T8-1	.200	.040	.422	5.046***
T8-2	-.076	.031	-.176	-2.460*
T8-3	.073	.036	.156	2.035*
Constant		R ²	Ad.R ²	F
10.397		.418	.387***	10.417

* $p<.05$, ** $p<.01$, *** $p<.001$

T8-1. I am worried a lot.

T8-2. I am prefer to stay alone.

T8-3. I feel loneliness all the time.

학교적응 요인의 문항들을 회귀분석 결과(Table 7), 다섯 개의 문항이 다문화 가정 자녀의 학교적응 점수에 영향을 주고 있다. 이 중 ‘학교에 있는 동안 마음이 편하다’는 문항(.252, $p<.001$)이 가장 높은 회귀값을 나타내 학교를 편안하게 느낄수록 학교 적응 점수가 높아진다. 다음으로는 ‘학교에서 최선을 다해 할 일을 한다(.127, $p<.001$)와 ‘아침에 학교 가는 것이 즐겁다(.116, $p<.001$)’ 문항이 학교 적응에 대한 설명력이 높아 아침에 학교에 가는 것이 즐겁고 학교에서 최선을 다할수록 학교적응 점수는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7. R-Analysis – School Adaptation factor

	B	Std.E	β	t
T9-1	.076	.037	.116	2.072*
T9-2	.127	.037	.184	3.454***
T9-3	.252	.033	.397	7.607***
T9-4	.116	.033	.178	3.497***
T9-5	.102	.028	.165	3.618***
Constant		R ²	Ad.R ²	F
13.085		.707	(.697)***	72.632

* $p<.05$, ** $p<.01$, *** $p<.001$

T9-1. I love study.

T9-2. I do my best in school.

T9-3. I feel comfortable while at school.

T9-4. I love to go to school in the morning..

T9-5. If a certain task for class is given, I work with pleasure.

문화적응 점수에 영향을 주는 문항을 살펴본 결과는 <Table 8>과 같고, 한국어(.557, $p<.01$), 어머니가 외국인이기 때문에 무시를 당하는 문제(.243, $p<.001$), 그리고 어머니가 외국인이라 학교 가기가 싫다(.121, $p<.01$)는 문항이 문화적응 점수를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다문화가정 아동이 한국어를 잘할수록 그리고 어머니가 외국인이기 때문에 무시를 당하거나 학교에 가지 싫은 정도가 낮을수록 문화적응을 잘 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Table 8. R-Analysis – Culture Adaptation

	B	Std.E	β	t
T10-1	.243	.081	.226	3.005**
T10-2	.557	.075	.481	7.443***
T10-5	.121	.058	.128	2.073**
Constant		R ²	Ad.R ²	F
.773		.523	.510***	39.852

* $p<.05$, ** $p<.01$, *** $p<.001$

T10-1. I am left out because my mother is a foreigner.

T10-2. I got stress due to my poor Korean.

T10-3. I hate to go to school because my mother is a foreigner.

3. 다문화가정 자녀의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의 상대적 영향력

다문화가정 자녀의 스트레스에 영향을 주는 변인들의 상대적 영향력을 분석하기 위한 회귀분석을 실시하기 전에 변수

Table 9. Correlations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Tolerance	VIF
① Stress	1													
② Integration	-.005	1											.570	1,756
③ Margination	.357**	.014	1										.698	1,443
④ Separation	.088	.251**	.478**	1									.643	1,554
⑤ Assimilation	-.122	.470**	-.139	-.145*	1								.690	1,449
⑥ Shrinking	.407**	-.146*	.197**	.112	-.190*	1							.488	2,049
⑦ Depressiveness Uneasiness	.548**	-.095	.298**	.121	-.153*	.678**	1						.497	2,013
⑧ School Tardiness	-.210*	.335**	-.125	-.049	.249**	-.341*	-.320*	1					.321	3,114
⑨ Activity	-.175*	.325**	-.113	.012	.246**	-.283*	-.270*	.675**	1				.276	3,624
⑩ Learning Attitude	-.090	.279**	-.033	.056	.231**	-.227*	-.211*	.642**	.697**	1			.315	3,173
⑪ Support from Friends	-.123	.435**	-.059	.030	.279**	-.386*	-.292*	.529**	.517**	.471**	1		.300	3,330
⑫ Support from Teacher	-.045	.367**	-.005	.075	.219**	-.345*	-.215*	.468**	.486**	.429**	.603**	1	.340	2,938

** Correlation is significant at the 0.01 level (2-tailed).

* Correlation is significant at the 0.05 level (2-tailed).

들 간 상관관계분석과 다중공선성 여부를 알아보았다(Table 9). 먼저 상관관계 결과를 보면, 다문화가정 자녀의 스트레스에 가장 상관관계가 높은 것은 내재화문제 변인 중 우울불안(.548)과 위축(.407)인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적응 변인은 내재화 문제 변인에서 동화(.470)와 사회적지지 변인의 친구지지(.435)와 정적 상관관이 있고, 내재화문제는 우울불안(.678)이 높고, 친구의 지지를 많이 받을수록 낮아진다. 학교적응 요인은 대부분의 변인과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는데, 그 중 학습태도(.642)와 활동성(.675)과 정적 상관관이 있고, 교사와 친구로부터 사회적 지지를 많이 받을수록 학교적응 점수가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

회귀분석에 투입된 변인 중에 상관계수가 0.6이상인 변수

가 있어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있는가를 검증하기 위하여 VIF 계수를 산출한 결과 모두 10이하의 값이었으며, 공차한계 또한 모두 .01이상으로 다중공선성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되어 회귀식을 구성하는 것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문화가정 자녀의 스트레스에 내재화문제, 학교적응, 문화적응 변인이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살펴 본 결과(Table 10), 3개의 요인 모두가 유효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변수의 설명력은 43.7% 이다. 다문화가정 자녀의 내재화문제가 증가하고, 문화 적응 수준이 높아질수록 스트레스가 증가하는 반면 학교 적응 점수가 높아질수록 스트레스는 낮아진다. 사회적 지지변수를 함께 투입한 결과 설명력은 약간의 증가가 있

Table 10. Regression Analysis for the Effect to Stress Sub-factors and Social Support

Y	Stressor of the Children from Married-Immigrant Families								
	X	STEP-1				STEP-2			
		B	Std.E	β	t	B	Std.E	β	t
Internalization Conflict	.190	.051	.204	3.716***	.190	.051	.204	3.757***	
School Adaptation	-.149	.051	-.160	-2.916**	-.149	.051	-.160	-2.941**	
Cultural Adaptation	.571	.051	.615	11.205***	.571	.051	.615	11.298***	
Social Support					-.102	.051	-.110	-2.014*	
Constant			23.195				18.420		
R ² (Adj.R ²)			.446(.437)***				.458(.446)***		
F			49.313***				38.614***		

*p<.05, **p<.01, ***p<.001

었고, 사회적 지지가 높아지면 다문화가정 자녀의 스트레스 수준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다문화가정 자녀의 특성을 반영해 주는 결과로서 문화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적응을 요구하는 것은 오히려 스트레스를 증가시킬 수 있고, 이러한 상황들이 개인의 내재화문제를 악화시켜 스트레스를 누적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그러므로 한국사회에 완전하게 편입되도록 적응을 요구하기보다 문화적 차이를 인식하고, 그 차이가 내재화문제를 야기하지 않도록 학교적응을 돕고, 사회적 지지를 제공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V. 결론

본 연구의 목적은 다문화가정 자녀의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규명하기 위해 다문화가정 자녀의 특성 중 내재화문제, 학교적응, 문화적응이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력을 알아보고, 사회적 지지가 이러한 변인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밝히는 것이다. 연구결과를 중심으로 다문화가정 자녀의 원만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기 위한 대안들에 관해 논의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다문화가정 자녀의 내재화 문제는 학업성적과 가정의 경제적 수준이 낮은 집단에서 높았고, 외모 차이가 크고, 어머니와 외국어로 대화하는 경우 학교 적응 점수가 높았다. 그리고 학업 성적과 가정의 경제적 수준이 낮은 집단의 문화적응 점수는 낮으며 학년이 높은 집단은 교사의 지지를 많이 받고, 외모 차이가 큰 집단보다 약간 있거나 없는 집단에서 친구 지지 점수가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다문화 가정 자녀의 문제를 외모의 차이나 언어적인 문제 보다는 학업성적과 가정의 경제적 수준이라는 측면에서 접근해야 함을 제시해주는 결과이다. 우리나라의 교육환경에서 학업 성적은 학교 생활에서 중요한 요소이고, 학업성적에 따라 학생 개인의 지위가 결정되며 교사와 친구들과의 관계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다문화 가정이라는 특수성보다 일반 아동들과 동일한 원인에 의해 부적응 문제가 야기될 수 있으므로

학교 현장에서는 차별화된 프로그램보다 학업성취 수준에 우선적인 관심을 두어야 할 것이다.

둘째, 다문화가정 자녀의 스트레스에 영향을 주는 변인의 내용을 분석한 결과, 내재화 문제는 걱정이 많고 외롭다고 느끼는 정도가 영향을 주었고, 학교를 편안하게 느끼고 학교에 가는 것과 공부를 좋아하는 아동의 학교적응 점수가 높았으며 어머니와 관련된 문항이 문화적응에 영향을 주었다. 이러한 결과는 일반 아동을 대상으로 한 동일한 분석을 통해 비교해 봄으로써 다문화가정 자녀들이 일반 아동들과 다른 원인에 의해 내재화 문제와 학교적응을 경험하는지 알아볼 필요성이 있다. 또한 다문화가정 자녀가 학교를 편안하게 느끼는 정도가 학교 적응에 가장 많은 영향을 준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다문화가정 자녀들은 학교를 다른 사회적 환경 보다는 상대적으로 안전하고 차별이 적은 곳으로 인식하고 있어 심리적 안전지대로 생각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학교는 교육 기능 이외에 심리적 안정감과 자존감을 이끌어 낼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할 것이다.

셋째, 다문화 가정 자녀의 스트레스는 내재화 문제가 증가할수록 높고, 학교 적응 점수가 낮을수록 그리고 사회적 지지가 낮을수록 높아졌다. 이러한 결과는 다문화 가정 자녀의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학교의 역할이 중요함을 제시해주는 것으로 해석된다. 학교에서 교사가 적극적인 지지를 제공하고, 다문화 가정 자녀의 학교 적응은 돕는다면 첫 번째 결과에서 보듯이 내재화 문제에 영향을 주는 성적 향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다문화가정 자녀의 스트레스는 낮아질 것이다.

위의 연구 결과를 종합해 볼 때 다문화가정 자녀를 위한 학교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새로운 방향 모색이 요구된다. 학교는 다문화가정 자녀들이 사회적 편견과 가족관계의 어려움을 벗어나 생활하는 장이며, 다른 사회적 환경보다 안전한 곳으로 기능할 수 있다. 따라서 학교에서는 다문화 가정 자녀를 보호와 지원의 대상으로 보기보다 일반 가정 자녀들과 동일한 발달적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으며 내재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하는 심리·정서적 접근과 학업 성취를 돕기 위한 프로그램들을 동시에 제공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최근 교육과학기술부 주도로 시작된 대학·사회적 기업이 운영하는 방과 후 학교의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수 있다. 프로그램은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알리는 단순한 정보 제공 수준을 벗어나 다문화 가정 자녀가 세계화된 국제환경에서 문화적 차이를 긍정적으로 발전시켜 개인적 역량을 강화시키는데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상담 및 교육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참고문헌

- An, E. M. (2007). *Study on factors effecting school adjustment of children from international marriages in the rural areas*. Unpublished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Korea.
- Choi, J. S. (1993). *The effect of elementary school children's impulsive personality on school adjustment*. Unpublished master's thesis, Yonsei University, Seoul, Korea.
- Choi, S. W. (2009). *A study of the factors affecting internalizing problems of children in multicultural families*. Unpublished master's thesis,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Daejeon, Korea.
- Ha, Y. H. (2003). The effect of individual and environmental variables on children's problem behavior. *Child Studies in Diverse Contexts*, 24(4), 29-40.
- Han, M. H. & Yoo, A. J. (1996). The relation of stress and perceived social support to problem behavior. *Child Studies in Diverse Contexts*, 17(1), 173-188.
- Hong, J. J. (2004). *A study on psychosocial adaptation of youth in mongolian migrant worker's family*. Unpublished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Korea.
- Jeong, Y. M. & Kim, D. S. (1998). The relationship between communication with parents of vocational girls's high school students and their problem behaviors. *Journal of the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36(3), 31-45.
- Jung, H. Y. (2006). *A study on the factors affecting school adjustment of mixed ethnic children-focused on the marriage of korean man with Asian woman*. Unpublished master's thesis, Soongsil University, Seoul, Korea.
- Jung, J. Y. (2007). *Family characteristics and school adjustment of the children of marriage-migrant families*. Unpublished master's thesis, The Catholic University, Seoul, Korea.
- Kim, H. J. (1998). *Difference of self-concept, school life adjustment competence and social competence of adolescent according to the birth order and distinct of sex*. Unpublished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Korea.
- Kim, J. D. (2003). *The relationships among children and adolescent's peer-group status, academic achievement and adjustment problem*. Unpublished master's thesis, The Catholic University, Seoul, Korea.
- Kim, J. W. (2005). *A study on the conditions educational welfare for the foreign workers; children in South Korea*. Korea Education Development Institute.
- Kim, K. H. (2005). The effect of poverty on children's psychosocial development. *Social Science Research Institute* 20, 109-125.
- Kwak, K. J. (2008). Development and adjustment of multi-cultural family children. *Proceedings of the 2008 Conferences of the Korean Psychology Association*, 1-23.
- Lee, J. H. (2005). *A study on the variables affecting victimization in middle school stud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Kyungnam University, Changwon, Korea.
- Lee, S. H. (2007). *The effect of children's perceives attachment to parents and self-esteem on school adjustment*. Unpublished master's thesis, Sungkyunkwan University, Seoul, Korea.
- Lee, S. H. & Choi, W. S. (2008). A study on the cultural identity and social relationships of children in an international marriage family. *Korean Journal of family Welfare*, 13(3), 163-185.
- Lee, Y. H. (2009). *A study on the multi-cultural family children's attachment, self-esteem and social support on school*

- adjustment. Unpublished master's thesis, Korea University, Seoul, Korea.
- Lee, Y. J. (2009). A study on the risk factors influencing psychosocial adjustment of a multicultural family adolescent. *Korean Journal of family Welfare, 14*(2), 103-120.
- Lee, Y. J. (2007). *A study on the factors influencing psychosocial adjustments of children of multi-culture familie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Kong Ju National University, Kong Ju, Korea.
- M, E. J. & S, H. O. (2001). Relationships between children's friendship quality self-perception and school adjustment. *Korean Journal of Child Studies, 22*(4), 99-130.
- Nho, C. R. (2000). Use of Rosenberg's self-esteem and collective self-esteem as predicting variables for psychological distress among Korean adolescents. *Korean Society of Child Welfare, 10*, 107-134.
- Oh, S. B. (2005). A case study on the growing of Kosian children and it's social environment. *The Korean Journal of Korea Education, 32*(3), 61-83.
- Park, J. H. (2003). *The influence of the adolescent parent relationship on the school adjustment*. Unpublished master's thesis, Han Nam University, Daejon Korea.
- Ryu, K. H. (2007). *The relationships among the resilience, sociality and school adjustment of children*. Unpublished master's thesis, Kohgju National University, Gongju, Korea.
- Shin, H. J. (2007). *A study an factors that affect the ego-identity of children from multi-cultural families*. Unpublished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Korea.
- Shin, J. H. (2008). *A comparative study on psychological and social adjustments between the immigrant women's children and general stud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Korea.
- Yang, J. S. (1997). *Mother's rearing behavior and children's social behavior*. Unpublished master's thesis, Chonman National University, Kwang ju, Korea.
- Yang, K. M. (2011). *A longitudinal study of children and adolescents from multi-cultural families II*.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 Yang, S. M. (2007). Variables impacting the school life adjustment and family life happiness of the women marriage migrants family's children in rural. *The Korean Journal of Woman Psychology, 12*(4), 559-576.
- Youn, J. J. & Chung, O. B. (1997). Preschool children's social competency and perceived social support. *Child Studies in Diverse Contexts, 18*(2), 311-331.
- Achenbach, T. M. (1991). *Manual for the child behavior checklist, 4-18 and profile*, Burlington, Vt : University of Vermont.
- Barnes, G. M. & Farrell, M. P. (1992). Parental support and control as predictors of adolescent drinking, delinquency, and related problem behavior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4*, 763-776.
- Farrington, D. P. (2003). *Key results from the first forty years of the Cambridge study of delinquent development*. In T.P. Thornberry, & M.D.K. Krohn(Eds.), Taking stock of delinquency:An overview of findings from contemporary longitudinal studies (137~183). New York: Kluwer.
- Henry, B., Caspi, A., Moffit, T. E., Silvia, P. A. (1996). Temperamental and familial predictors of violent and nonviolent criminal convictions: Age 3 to 18. *Developmental Psychology, 32*, 614-623.
- Hovey, J. D. & Magana, C. G. (2002). Cognitive, affective, and physiological expressions of anxiety symptomatology among Mexican migrant farmworkers: predictors and generational differences. *Commun Ment Health J.*

<국문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다문화가정 자녀의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규명하기 위해 다문화가정 자녀의 특성 중 내재화문제, 학교적응, 문화적응이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력을 알아보고, 사회적 지지가 이러한 변인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밝히는 것이다.

다문화가정 자녀의 스트레스에는 문화적응 변인이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내재화문제, 학교적응 순이었다. 특히, 문화적응과 관련된 스트레스 중에서는 어머니의 국적 때문에 발생하는 갈등도 있었으나 그 보다는 한국어에 대한 스트레스가 더 큰 문제로 작용하고 있었다. 그 밖에 내재화 문제에 따른 갈등이 증가하거나, 학교적응도가 낮아질 경우 스트레스가 증가하였으며 사회적 지지가 증가할수록 스트레스 정도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문화가정 자녀가 경험하는 스트레스를 경감시키는 위해서는 다문화라는 배경적 특수성보다 다른 학생들과 동일한 발달 단계에 있는 대상으로 접근하는 관점이 필요하다. 그리고 다문화가정 자녀에게 학교는 다른 사회적 환경보다 안전한 곳으로 기능할 수 있으므로 앞으로 다문화가정 자녀들을 위한 학교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새로운 방향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다문화 가정 자녀에게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알리는 단순한 정보 제공 수준을 벗어나 문화적 차이를 수용하고, 개인의 자존감을 향상시켜 줄 수 있는 다양한 교육적 기회가 제공되어야 한다.

■ 논문접수일자: 2012년 8월 5일, 논문심사일자: 2012년 8월 6일, 게재확정일자: 2012년 9월 26일